

비교론

송 명 재

한전 원자력환경기술원 연구개발실장

우 리말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는 말이 있다. 이는 제 허물이 큰 줄은 모르고 남의 작은 허물만 들추어 내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든지 “숲이 검정 나무란다.” 는 속담 모두가 비슷한 경우에 쓰인다.

나뭇잎 한 개만 떨어져도 큰 소리로 울릴 것만 같은 정적에 휩싸인 고요한 숲속에서 면적이 넓고 잘 부스러지는 가랑잎이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내는 바스락 바스락하는 소리는 고요한 정적을 깨기에 충분하다. 소음을 내고서 계면적은 가랑잎은 마침 옆에 있던 뽕죽하고 조그만, 도대체 소리를 낼 것 같지 않은 솔잎더러 떠들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한단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소리는 아무나 낼 수 있다. 그렇다고해서 시끄럽다고 숲에 있는 나무든 풀이든 모두 베어 없애 버릴 수는 없다. 누가 더 시끄럽고 누가 덜 시끄러운지 비교를 해서 절대 고요함을 원한다면 더 시끄러운 놈을 덜 시끄러운 놈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 세상에 ‘절대’ 라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서로 견주어 보아야 하고 또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최근 들어 우리 나라의 여자 골프 선수들이 미국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박세리·김미현·박지은 등 모두 세계 정상급의 여자 선수들이다. 이들 중 특히 박세리와 박지은, 두 박씨 골퍼에 대해서 비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의 프로 골퍼계에 한발 먼저 발을 내민 박세리는 한국에서 지옥 훈련을 통해 실력과 벻장을 연마한 ‘국내파’ 선수이다.

이에 반해 박지은은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가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리고는 당시 미국 여자 골퍼계를 휩쓸던 애리조나 대학에 진학해 대학 여자 골퍼계를 평정한 ‘유학파’ 에 해당한다.

두 골퍼 모두 튼튼한 하체와 장타력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박세리가 강인한 정신력을 무기로 하여 엄청난 연습을 하는 노력형임에 반해 박지은의 정신력은 다소 떨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많은 연습을 하지는 않는 편이라고 한다. 박지은은 골퍼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두 박씨가 어떠한 성적을 거둘지 지켜볼만 하다. 그러나 두 선수들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모두가 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후원할 필요가 있다.

지난 여름은 유난히도 길고 지루했다. 따라서 전

력 소비도 작년까지의 최고치를 가뿐하게 경신했다. 이런 마당에 화력이면 어떻고 원자력이면 어떻든시간에 따질 것 없이 발전소란 발전소는 있는데로 다 돌려야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 아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여름이 가고 날씨가 쌀쌀해져 전력이 남게 되면 다시 이러한 발전소는 이래서 안되고 저런 발전소는 또 무엇이 문제이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또 원자력발전소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방식능 때문에 안된다고 반대한다. 여러 가지 형태 발전소 중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발전소가 무엇인지 우리는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러자면 여러 종류의 발전소를 놓고 그 장단점을 비교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은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발전소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더군다나 요즈음처럼 국제 원유 가격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형편이라면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에게 어쩌면 원자력발전소를 가졌다는 것은 행운이라고도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생각을 달리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는 환경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한 세기는 산업화를 한답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괴롭히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을 오염시켜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환경 오염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시점에 첨단 기술이 집약되는 원자력 에너지 이용은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원자력 에너지가 우리 환경을 보전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의 환경 운동가들이 하는 말이다. 환경 운동이란 정말 좋은 운동이다. 아무도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자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환경 운동을 하는 방법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기는 인류가 문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의 환경을 보존한다고 전기를 안 쓸 수는 없다. 우리의 눈 앞에는 수력·기름발전소, 석탄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건강한 문화 생활을 영위해가면서 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 방식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을 비교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비교론이 대두되는 것이다.

특히 환경 보존 측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발전 방식을 선택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는 ‘지구의 온실 효과’와 ‘산성비’ 측면에서 크게 문제되고 있다.

지구 온실 효과의 주범은 이산화탄소이고 산성비의 주범은 질소화합물 또는 황화합물이 되고 있다. 이러한 오염 물질을 많이 방출시키는 전력 에너지 자원은 석탄·석유 및 천연 가스의 순서이다. 이에 반해 원자력 에너지는 이러한 오염 물질을 거의 방출시키지 않는다. 오염 물질 방출량을 비교해보면 그 결과는 자명한 것이다. 지구의 온실 효과를 방지하고 산성비가 내리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그러면서도 문화 생활을 위해 풍부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자력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원자력발전소에서 환경 오염 물질이 전혀 방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사성 폐기물의 양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양에 비해 극히 적고 또 지금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땅속에 영구 처분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서 선진 외국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고 있다. ☞